여기는 남극, 희망을 보았다

세계 최초 장애인 7대륙 최고봉 완등 동행 취재기

강풍 뚫고 8시간 사투…마침내 '빈슨'의 여신 가슴을 열다

영하 30도 추위속 고독한 한걸음… 한걸음…

"12년만의 쾌거, 드디어 세븐 서미트 완등"

잃어버린 열손가락 대신 꿈과 희망을 되찾다

❶ 마지막 최고봉, 빈슨 매시프

지난 2일 오후 3시20분(한국시각 3일 새벽 3시40분) 남극대륙 최고봉 빈슨 매시프(Vinson Massif·4,897m) 정상으로 이어지는 칼날 릿지에 한 사나이가 올라섰다. 바위와 얼음 위에 분설이 덮여 아슬아슬하게 형성된 설릉은 가풀막지게 꼭대기를 향해 뻗어가고 있었다.

지축마저 뒤흔들 듯 쉼없이 블리자드(눈을 동반한 강한 폭풍설)가 불어댔지만 그는 두 발로만 균형을 잡으며 성큼성큼 릿지를 올라섰다. 양손이 없는 탓에 다른 등반가들처럼 피켈이나 자일에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툼한 우모장갑 속에는 열 손가락이 모두 잘려 나간 뭉툭한 손목이 감춰져 있었다.

남카로운 크램폰(등산화밑에 착용하는 톱니모양의 등산용구)으로 빙설벽을 힘차게 찍으며 걷기를 20여분.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었다. 마침내 정상에 다다른 것이다.

대륙의 용마루는 넓지 않았다. 두 사람이 겨우 발을 디딜 수 있는, 한 평 남짓한 공간은 깍아지른 눈처마로 이어지더니 빙하바닥을 향해 급전직하로 내달았다. 시야를 가리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동쪽으로 정상 3형제봉인 서브리 피크(4,865m), 코펫 피크(4,822m)가 어깨를 마주하고, 북쪽 건너편엔 마운트 신(4,660m)이 특유의 호리병 자태를 뽐내며 우뚝 서 있었다.

산등성마루 연봉들에 가려 아래쪽 캠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상을 밟는 순간 그의 눈가에는 어렴풋이 물기가 스쳤다. 각 대륙 최고봉 등반의 순간들이 주마등 처럼 스쳐갔다. 맥킨리에서의 조난사고, 몸의 일부가 묻 때까지 되풀이했던 재활훈련, 원정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나날들, 장비와 식량 개선을 위해 무릅썼던 숱한 위험의 순간들, 거듭된 시련과 고난에도 넉넉한 웃음으로 버텨왔던 그였지만 이 순간 만큼은 소리내어 울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드디어 세븐 서미트(Seven Summits)를 끝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소감에 이어 함께 간 대원, 가이드와 포옹을 나눴다. 갑격의 순간도 잠시. 장갑을 벗은 채 후원 기관 및 업체들의 깃발을 차례로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 그의 손목이 얼어붙기 시작했다.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추위와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초속 30m의 강풍은 이제 그만 내려가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빈슨 매시프 등반을 위해 2년동안 준비해왔건만 정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단 15분에 불과했다.

'2008 남극대륙 빈슨 매시프 원정대' 김홍빈(45) 대장. 그는 이렇게 세계 7대륙 최고봉 도전을 마무리했다. 산이 좋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등산이기에 도전했지만 어느새 12년의 세월이 흘렀다. 7대륙 최고봉 완등은 양 손이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다. 국내에선 몸이 온전한 산악인까지 다 합쳐도 다섯 번째다. 작심한다고 해서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꿈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산 도중 만난 스페인과 러시아 등 각 국 원정대원들 저마다 긴 포옹으로 그의 등정을 축하했다. 손가락을 모두 잃는 아픔에도 절망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인간 승리를 이뤄낸 데 대한 경의의 표시였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구랍 31일 눈보라 속에 하이 캠프(3,700m)에 오른 원정대는 다음날인 새해 첫 날 정상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남국의 날씨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강풍과 상승기류가 몰고 온 자욱한 개스가 캠프 사이트를 온종일 뒤덮고 있었다. 블리자드는 한번 불기 시작하면 2~3일은 계속되는 특성상 그 다음날도 장담할 수 없었다. 기상 예보도 우리 편은 아니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만은 없었다. 2일 아침 정상 공격을 결정했다. 오전 7시30분 정상 연봉을 향해 겹겹 뻗어있는 설원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이 캠프에서 정상까지는 고도차가 1,200m 가까이 나기 때문에 당일 왕복은 벅차다. 서둘러야 했다.

빈슨의 체감 고도는 위도상으로 볼 때 실제보다 1,000m 이상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대원들은 고소에 제대로 적응할 기회조차 없었다. 더욱이 원정대는 남극에 도착한 이후 철저히 빵과 살라미 등 현지식으로만 끼니를 해결했다. '최소 장비, 최소 식량' 원칙에 따라 쌀과 고추장 등 한국 음식은 일체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만하게 펼쳐진 설원을 2시간쯤 오르자 톱밴드(암벽을 가로지르는 띠 모양의 가고 긴 돌출 부위)가 나타났다. 공격 루트는 크레바스(빙하의 갈라진 틈)지대를 피해 신(Shinn)봉과 정상 연봉 사이 오른쪽 안부를 향해 설정됐다. 30~40도 경사의 오르막은 끝이 없는 듯 지루하게 이어졌다. 설상가상 바람도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다. 스키 고글에 바라클라바(Balaclava·눈만 내놓은 채 목까지 내려오도록 만든 복면 형태의 모자)까지 착용했지만 내쉬는 숨은 그 즉시 얼음이 되어 얼굴에 달라붙었다.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 지고 내딛는 걸음도 무극복하고 거봉 도전을 계속해온 경험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의 초인적인 의지에 빈슨의 여신도 가슴을 활짝 열고 정수리 위로 그를 초대했다.

돌이켜켜보면 7대륙 최고봉을 넘어서기 까지는 지역 산악계 선후배들의 도움이 컸다. 원정을 꾸릴 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선배들, 등반때마다 '아름다운 동행'으로 기꺼이 그의 손이 되어주거나 장비를 손가락 없는 손에 꼭 맞게 개조해준 동료와 후배도 있었다.

김 대장은 "등반이 힘들어 뒤를 돌아보게 될 때면 그동안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용기를 낸다"고 했다. 7대륙 최고봉 완등은 이처럼 그를 격려하고 도와준 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다.

이번 원정을 통해 그는 '잃어버린 손가락'을 되찾았다. '조금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 것이다. 빈슨을 내려오는 김 대장의 마음은 벌써 다음 목표인 안나푸르나와 다울라기리, K2 등 히말라야 8,000m급 거봉들을 향하고 있었다.

/글·사진=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빈슨 매시프 등반 루트

'2008 남극대륙 빈슨 매시프 원정대' 김홍빈(45) 대장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이하 현지시각) 장비와 식량을 실은 눈썰매를 끌고 베이스 캠프(2,100m)에서 로우 캠프(2,750m)까지 끝없이 펼쳐진 설원을 오르고 있다. 아래 사진은 지난 2일 빈슨 매시프 정상(4,897m)에 올라 광주일보 깃발을 펼쳐든 김 대장과 정후식 대원.

■남극 대륙의 산들과 빈슨 매시프

남극대륙 최고봉인 빈슨 매시프 로우 캠프(2,750m)에서 하이캠프(3,700m)로 이어지는 45~60도 경사의 빙설벽을 오르고 있는 각 국 원정대원들. 이 구간에는 1,200m가량 고정 로프가 설치돼 있다.

4,000m급 18개 3,000m급 6개 산

4,897m 빈슨 매시프 최고봉

한반도 넓이의 61배나 되는 남극 대륙은 표면의 98%가 얼음으로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산군을 가지고 있다. 산군(Mountains)과 만년빙으로 괄쳐진 플래토(Ice Plateus), 봉빙(Ice Shelf)들이 마치 위성도시처럼 괄쳐져 있다. 이 가운데 남극 횡단산맥(Transatlantic Mountains)은 동남극과 서남극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횡단산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들은 대륙의 해안선을 따라 거대한 쇠사슬처럼 길게 연결되어 있다. 18개의 4,000m급 산과 6개의 3,000m급 산이 있다.

빈슨 매시프(Vinson Massif·4,897m)는 남극 대륙의 서쪽 엘스워드(Ellsworth) 산군의 센티넬(Sentinel) 산맥에 속해 있는 남극 최고봉이다. 센티넬 산맥은 1935년 미국의 백만장자 탐험가였던 린컨 엘스워드(Lincoln Ellsworth)에 의해 처음 발견됐고 너비 90km, 길이는 355km에 이른다. 최고봉인 빈슨 매시프는 1935~1961년 남극 조사및 탐험의 강력한 후원자였고, 당시 미국 군사위원회 의장이었던 칼 빈슨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연봉'이라는 의미의 매시프는 정상이 3개의 봉우리로 이뤄졌다 하여 붙여졌다.

1960년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후원 아래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와 아메리칸 알파인 클럽 합동등반대가 처음 정상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1985년 11월 29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파견한 한국남극관측탐험대(대장 홍석하)의 하묵, 허정식, 이찬영 대원이 세계에서 여섯번째로 등정에 성공했다.

등반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가장 추운 대륙에 있는 만큼 다른 지역과 다른 몇 가지 장애물을 넘어서야 한다. 블리자드(blizzard·폭풍설 또는 강한 눈보라)와 연평균 영하 50도에 달하는 낮은 기온이 그 것이다. 하루 20시간이 넘는 백야 현상은 등반팀의 휴식을 방해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김홍빈 대장 등반 기록

〈세계 7대륙 최고봉〉

▲1997년 7월 30일 유럽대륙 엘브루즈(5,642m) 등정

▲1997년 9월 17일 아프리카대륙 킬리만자로(5,895m) 등정

▲1998년 1월 16일 남아메리카대륙 아콩카구아(6,959m) 등정

▲1998년 5월 31일 북아메리카대륙 맥킨리(6,194m) 등정

▲2007년 5월 16일 아시아대륙 에베레스트(8,848m) 등정

▲2007년 7월 3일 호주대륙 코지어스코(2,228m) 등정

▲2009년 1월 2일 남극대륙 빈슨 매시프(4,897m) 등정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와 북미 맥킨리는 2002년에 다시 등정

〈히말라야 8,000m급〉

▲2006년 파키스탄 가셔브룸Ⅱ(8,035m) 등정

▲2006년 티벳 시샤팡마 남벽(8,027m) 등정

▲2007년 네팔 에베레스트(8,848m) 등정

▲2008년 네팔 마칼루(8,463m) 등정

謹賀新年.
동거울 선 면적 되십시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요'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광주) 농아회관 (002)227-9940
충장점 (금남)금남로 (062)227-9970

영화안내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2009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현대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적벽대전2 (15세) 최고급관
2관 작전명 발키리 (12세)
3관 트랜스포터3(15세)/롤라(12세)
4관 유감스러운 도시(15세)
5관 유감스러운 도시(15세)
6관 쌍화점 (18세)
7관 베드타임 스토리 (전체)/작전명 발키리 (12세)
8관 과속스캔들 (12세)
9관 적벽대전2-최후의결전 (15세)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4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유감스러운 도시(15세)
2관 벼랑위의 포뇨 (자막)(전체)/마다가스카2 (전체)
3관 체인질링 (18세)
4관 베드타임 스토리 (전체)
5관 작전명 발키리 (12세)
6관 디파이언스 (15세)
7관 쌍화점 (18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한 목포-목의 주차장 300대 * 온돌 실내상영

청포시설 영화시설 * 예매: www.joycbc.com / 1588-7941
상무점 - 전남대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웨딩홀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맞은편)
1관 과속 스캔들 (12세)
2관 벼랑위의포뇨(더빙)(전체)/베드타임 스토리 (전체)/트랜스포터 (15세)
3관 적벽대전2-최후의결전 (12세)
4관 적벽대전2-최후의결전 (12세)
5관 불트(더빙)(전체)/체인질링 (18세)
6관 마다가스카2(더빙)(전체)/작전명 발키리 (12세)
7관 유감스러운 도시 (15세)
8관 쌍화점 (18세)
9관 작전명 발키리 (12세)
10관 유감스러운 도시 (15세)
* 오남 복대 주차장 * 매월심야 상영합니다
롤롬버스 회원 (10개월) 정보와 상영관 안내 1588-7941 상단한국 방법 -개수 2천~4천
2008년 전세계를 구원 하려던 악마의 사자들다
발키리

새롭고 즐거운 영화사랑 * www.sinua.co.kr /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작전명 발키리 (12세)
2관 쌍화점 (18세)
3관 트랜스포터(15세)/적벽대전2(15세)
4관 과속 스캔들 (12세)
5관 마가디스카2(더빙)(전체)/체인질링(15세)
6관 유감스러운 도시 (15세)
7관 적벽대전2 (15세)
* 매월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의 서무나(오전5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체인질링

고객사랑 고객감동 * www.hamicinema.co.kr / 1588-8120
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하이스포렉스 ☎ 267-7777
1관 벼랑위의 포뇨(더빙)(전체)/베드타임 스토리 (전체)
2관 적벽대전2 (15세)
3관 과속 스캔들 (12세)
4관 마가디스카2(더빙)(전체)/트랜스포터(15세)
5관 적벽대전2 (15세)
6관 쌍화점 (18세)
7관 디파이언스(15세)/작전명 발키리(12세)
8관 유감스러운 도시 (15세)
9관 유감스러운 도시 (15세)
10관 작전명 발키리 (12세)
* 500원 넘은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이동 통신사 & OK 카드에 카드 할인 혜택
* 하이 수영장 262-6757 * 하이 볼링장 262-0625
* 하이 골프장 251-5080 * 하이 당구장
베드타임 스토리

새롭고 기쁨 * www.primusciniema.com/new.jeilcinema.co.kr *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유감스러운 도시 (15세)
2관 쌍화점 (18세)
3관 체인질링 (18세)
4관 작전명 발키리 (12세)
5관 적벽대전2 (15세)
6관 과속 스캔들 (12세)/베드타임 스토리 (전체)
* 무료주차 3시간 (충장 세무소 옆 호남터미널 자리)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유감스러운 도시